



[종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성큼
국내외 막판 스퍼트
04



Economy

코스피	2553.30 (0.00)	코스닥	870.18 (0.00)
금리 (미국 3년)	0.963 (+0.008)	환율 (원-달러)	1114.30 (-1.30) (20일)

KCGI, 한진칼 증자 가치분신청 이번주 심문

‘주주권리 vs 항공재편’ 법원 판단은

산은 출자 정당성 여부 판가름
가치분신청 인용시 통합 무산
이르면 내달 1일 결과 나올 듯

오는 2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빅딜이 첫 갈림길에 선다.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리는 것. 가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대 국적항공사의 합병은 무산되고 산업은행의 ‘플랜B’가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산업 재편의 이정표가 달라진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6호에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한다. 심문



(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강성부 KCGI대표. /각사

에는 KCGI와 한진칼, 산업은행 이해관계자가 출석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룬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의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신주(1조 5000억원)와 영구채(3000억원)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이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산업은행은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KCGI “주주권리 침해”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KCGI는 반도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과 대립 중이다. KCGI 측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크다는 입장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를 말한다.

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은 46.7%, 조 회장은 41%다. 산업은행이 참여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10% 남짓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AI+빅데이터’ 트렌드 공유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사건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4년 여가 지난 올해, 미국의 오픈에이아이(AI)가 개발한 AI 언어모델인 ‘GPT-3’는 아직 AI가 ‘내로우 AI’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너럴 AI’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선보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AI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댐’ 사업이 주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AI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데이터댐’에만 추정 예산 5000억원이 투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양질의 데이터와 결합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대표 IT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AI 시대의 도래를 발빠르게 예견했으며, 지난해 개최된 4회 포럼도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제: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14:00~17:00
- 장소: 서울 중구 청파로 464번지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 축사: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조봉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과 인공지능·비즈니스모델 연구소장)
- 강연 1: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 강연 2: 정영조 KT 마스터PM
- 강연 3: 오승택 에이모 대표
- 등록: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 접수: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공지
- 문의: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비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고유시청자 85만명... ‘온라인 관람’ 새 가능성

지스타2020 폐막

공간적 제약 없어 접근성 ↑
첫날에만 23만 여명 시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초로 ‘온택트’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2020’이 22일 막을 내린다. 오프라인 관중 없이 진행돼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19일 개막한 지스타는 물려든 인파로 인해 떠들썩했던 부산 벡스코 현장은 조용했지만,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도에 눈길을 끌었다는 평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



‘지스타2020’ 개막식에서 ‘줌’으로 참가한 50여명의 참가자들. /김나인 기자

도 있다. ◆‘지스타TV’ 고유시청자 총 85만여명

22일 지스타2020은 지난 19일 개막해 이날로 폐막한다. 지

스타2020 관람객은 약 24만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내렸다. 올해 지스타는 이와 달리 온택트 기반으로 열려 참가 저조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선방했다는 평이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4일 간 본 행사를 찾은 고유시청자는 개막일인 11월 19일 23만 693명을 시작으로 20일 15만 799명, 21일 17만 7249명, 마지막 날인 22일 18만명(추정치)로 총 집계됐다.

지스타 컵의 경우, 대회 첫날인 20일 2만 9549명, 21일 8만 2375명이 ‘지스타TV 이스포츠’ 채널을 찾았다.

지스타 기간 트위치 ‘지스타TV’를 다녀간 고유시청자는 총 85만 665명(추정치)으로 집계됐다. 고유시청자는 지스타TV를 방문한 개별 시청자 수다. 한편, 트위치 ‘지스타TV’ 채널 팔로워 수는 1만을 돌파했다.

지스타TV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스타 조직위가 준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스타TV에서는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를 포함해 넥슨, 네오위즈, 컴투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이 생중계나 녹화 영상으로 신작이나 자사 게임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6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

코로나 ‘3차 유행’ 시작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내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 이상 발생하면서 ‘3차 유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음식점

점은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명 늘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